READER'S Q&A

학교생활

학생부 마감 후에는 출결 기록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입 원서 제출용 학생부 기재가 11월 20일로 마감됐는데 이후에는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해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전 등교를 할 수 없거나 원격 수업을 빠질 경우 학교에 따로 알리지 않아도 미기재 처리되는 건가요?

노은우 (가명 · 43 · 서울 송파구 잠실동)

A

출결 상황은 졸업하는 날까지 학생부에 모두 기재됩니다.

고입 전형에 제출해야 할 학생부 기록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11월 말경 기재가 마무리되며 반영 마감일이 지난 후의 출결, 봉사, 수상 내용은 고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북 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는 "고입 원서 제출 마감 후에는 미인정(무단) 결석을 해도 고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졸업하는 날까지 모든 출결 상황은 학생부에 기재된다. 또한 1년간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 일수를 합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졸업이 불가능하며 고등학교 합격도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석 일수가 졸업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더라도 해외 유학이나 기타 중학교 학생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은 기간 성실하게 출결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간혹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 자제가 권고되는 상황이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학 전까지 등교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대부분인 만큼 가급적 미인정(무단) 결석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입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 추천 인원이 계열별로 표시돼 있을 때, 한 계열만 있는 학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이가 외고에 재학 중입니다. 경희대의 2022 대입시행계획을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별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더군요. 계열별 추천 인원이 별도로 표시돼 있고요. 외고처럼 인문 계열만 있는 경우 추천 인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요.

임수진(47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A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 인원의 계열 구분은 대학의 모집 단위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2022학년 수시 모집의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경희대의 2022 수시 학생부 교과(고교 연계 전형)는 고교별로 최대 6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인문 2+자연 3+예·체능 1이라고 별도로 표시했지요.

외고는 인문 계열의 학생만 있으니 2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 자연 계열과 예체능 계열에서 추천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해 6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희대 입학처에 따르면 "추천 인원의 계열 구분에서 기준은 추천하는 고교가 아니라, 대학의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외고의 경우 인문 계열로 2명을 추천하고 자연 계열에 추천할 학생이 없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른 계열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외고라고 해도 만약 자연 계열에 추천할 학생이 있다면 3명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MORE TIP

세종대의 2022 수시 학생부 교과(지역 균형 전형)도 고교별 추천 인원은 총 8명 이내이고, '본교 모집 단위 기준 인문계 3명, 자연계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입학처에서도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는 올해 신설된 항목인데, 내년 초 2022 수시 모집 요강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